

윤석찬의 '우리와 경제'



빛 권한은 세상의 끝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온다. 찻잔까지 만 받는다. 어김없다. 싸게 빌려줄 테니 돈 쓰라는 내용이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에 불만만 프로그램을 찾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 짜증이 난다. 광고 대부분이 돈 빌려가란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긴 대부분 광고가 하루 평균 약 400회나 전파를 탄다고 하니 어찌 피해갈 수 있을까. 한국은 은행을 포함한 신용공업업체의 그물망에 갇혔다. 이들이 내놓은 합정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대부분은 빚쟁이다. 청장년층은 학자금, 자동차, 집 또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다. 은퇴자도 예외일 수 없다. 쥐꼬리만 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니 조그만 가게라도 하려면 또 빚을 져야 한다. 이런 빚이 없다고 자신할 일은 아니다.

빚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통 사람의 일생은 부채와 함께 한다. 과장해 표현하면 산다는 것은 빚을 내고 또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이미 부채의 덩어리

였다.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이다.

우리 대부분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한다. 삶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부채의 덩어리에 걸린 이상 그것은 꿈일 뿐이다.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이 발목을 잡으니 싫어도 일을 해야 한다. 노예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누가 우리 빚쟁이를 노예로 만드는가.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빚을 남발한다. 우선 자본은 순환 양의 사회를 원한다. 그들은 대중이 저항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한 최고의 방편이 우리를 빛의 울거미에 묶어두는 것이다.

또 자본은 넘쳐나는 생산물을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든 그것을 팔아야 한다. 자본이 생산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과잉 생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잉 소비뿐이다. 물론 우리의 지갑은 이미 마른 상태이다. 생산물이 넘쳐날수록 빚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했다. 성장을 위해 소비가 필요한 상황, 다시 빚이 강권되었다. 이러니 빌리지 않는 게 외려 비

정상이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싸게 빌려준다는 유혹을 참아내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은 자본이 쳐놓은 거미줄에 속절없이 걸려들기 마련이다. 일단 빌리면 벗어나는 건 힘들다. 팽창하려는 게 빛의 속성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집을 사기 위해 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금 및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빌리는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계속된 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분위기가 속세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 삶이 나라로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빚이 무한히 늘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부채는 담보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담보는 유한하다. 결국 빚도 무한 팽창할 수는 없다. 부채를 담을 수 있는 그것은 유한한데 마냥 커지면 어찌될까. 까지지 된다. 바로 부채위기가 말하는 빛의 폭발이다. 현대 경제는 과도한 신용을 먹이사마 성장한다. 하지만, 신용의 무

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지구의 자원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저금리도 영원할 수 없다. 글로벌 금리시장은 변곡점에 이른 상태이다. 글로벌 금리는 철새 때의 판매비행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우두머리 새가 방향을 틀면 다른 새들도 방향을 바꾸듯, 대장금리 격인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다른 나라의 금리도 동반 상승하기 마련이다. 한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우리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니 서둘러 '안심대출'이란 명목으로 부채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명목이 야 대출 받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금리 흐름의 변화를 예상한 최소한의 금융시스템 보호책이다.

세계가 부채로 열병을 앓은 게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빚을 늘렸다. 역사는 말한다. 빚을 진 개인과 국가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한다는 걸. 부디 그대가가 혹독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서둘러 빚을 줄일 일이다.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송우진 원불교 상무대교당 교무

산고를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전역하고, 결혼하고 애만 나면 평안해질 것 같이 보던 인생은 다시 뛰라고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다시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면 일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육아에서 오는 갈등으로 숨쉬기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겹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한참 글을 적고 나니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고통의 연속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물론 부처님도 '인생은 고타'라고 이야기하셨고, 대중사님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이라는 표현으로 인생의 험난함을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중간 중간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 삶을 웃음 짓게 해주었던 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 느낄 수 있는 나에게 고통의 순간은 가혹하기만 하고 견디기 어렵지만 합니다. 풀 같은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도 하나의 진리를 알면 견딜만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대소유무의 이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란 '진리의 근본자리와 나타난 자리가 서로 있어졌다 없어졌다 변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소유무의 이치 때문에 영원한 괴로움도 영원한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영원한 것은 없고, 내가 누리는 어떤 즐거움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의 많은 고통들이 대부분 견딜 만하게 됩니다.

뒤돌아 생각해보세요. 과거 너무 중요하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던 엄청난 중간 중간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내 삶을 웃음 짓게 해주었던 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 칼럼을 읽고 변하는 이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고통은 가슴으로 깊이 느껴지고, 즐거움은 짧기만 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 삶이 늘 흐르고 있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행복한 시간이 온다는 것을 통찰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이치와 '그 변화하는 것의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괴로운 시간이 스스로 책임지며 좀 더 견디기 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 고

묻혀있는 4·19 광주정신 바로 세우자



이병열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성지 광주에는 광주정신이 맥을 이어 오고 있음을 질곡의 역사는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일본 강점기에 광주에서 발발한 학생 독립운동은 요원의 불길기 되어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촉발해 일제의 간담을 세늘하게 했고,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세계민중 운동사에 대우평등으로 기록되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다.

또 광주전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미항이다. 전국 어디를 가나 광주, 전라도의 맛있는 음식을 말하며 경탄을 보낸다. 특히 '전라도 김치' 등 전통 김치는 음식 문화는 미항 광주의 자랑이다. 미항 광주의 전통축제인 김치 축제를 작년에 서울시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벌이면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김치축제를 대한민국의 축제로 세계화 시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광주시민으로서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전통 축제를 서울시가 추진한다 하니 광주의 위상과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속에 묻혀있는 4·19광주정신 또한 광주의 자존심을 심히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초석을 이룩한 4·19혁명의 진원지가 광주임에도 그 같은 역사적 사실은 역사의 음지에 묻혀있고 위대한 4·19광주정신은 광주에서조차 광주의 역사로 관리되고 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시원일 3·15부

정선거 규탄데모가 1960년 3월15일 낮 12시45분 전국 최초로 '광주 금남로 국민주주의 장승 데모'로 시작되었다. 마산 3·15 일본 강점기에 광주에서 발발한 학생 독립운동은 요원의 불길기 되어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촉발해 일제의 간담을 세늘하게 했고,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세계민중 운동사에 대우평등으로 기록되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다.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 보도된 동아, 조선, 한국일보(1960.3.15~16일 조간·석간) 기사가 역사적 진실을 입증하고 있는 데도 역사의 기록은 광주, 마산·15의거로 기록되지 않고 마산 3·15의거만을 기록 관리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4·19혁명의 도화선은 자유당 독재정권에 반발해 일어난 1960년 3월15일 제4대 정무통령 부정선거 규탄 데모였다. 3·15 부정선거 반대 데모중 행방불명이 된 마산상고 김주열학생의 시신이 26일이 지난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되어 전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4월18일에는 광·3·15의거 정부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헌법전문에 명기된 4·19민주이념의 시원은 4·19광주정신이며, 광주와 광주시민의 역사문화유산이요 자존심이요 자산이다. 4·19주역뿐만아니라 광주시민과 광주광역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묻혀있는 소중한 4·19 광주정신을 대한민국 역사 반열에 바로 세울 때 광주는 학생독립운동과 5·18광주민주화항쟁과 더불어 세계속의 민주성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광주U대회 북핵발 훈풍, 성공 개최 보인다

2015 광주세계육아니버시아드(광주U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도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늘 오후 북한 대표단 4명이 U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핵 발(發) 훈풍이 광주U대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응원단은 참가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한다면 국제관례에 따라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에 대규모 응원단을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에도 파견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응원단 참가가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인천아시아게임에서는 북한이 인공기 제양 등을 문제삼아 참가가 좌절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을 누비게 되면 부산아시아게임처럼 광주U대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를 계기로 대회 흥행은 물론 경제색에 있는 남

북한의 화해·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이날 정부가 다시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시간과 의견상 기대할 없게 됐다. 하지만 판문점을 통한 성화 봉송문제는 우리 정부와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성화 봉송 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혀 부정적인 시각만은 아니다.

이제 정부는 성화 봉송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원회도 정부에 적극 촉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 응원단 참가에 대비, 그들이 체류하는 데 불상사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숙박, 이동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4일까지 나흘간 광주를 방문하는 장정남 북한 대학생 체육협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 4명에 대해서도 따뜻한 손길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사라지는 어린이 놀이터 뛰어 놀 곳은...

가난한 동네의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놀이시설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바람에 보수·정비에 예산이 없어 폐쇄되거나 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만을 외치다가 '교과실수'의 우를 범하는 것 같이 우려스럽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의 놀이터 1821개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엄격해져 지난 1월부터 이용이 금지된 곳은 65개에 이른다. 전남지역도 941개 가운데 42개의 놀이터가 개선 및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라고 한다. 안전에 대한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이에 맞춰 개선할 비용이 없는 게 문제다. 놀이터 1곳당 시설정비 예산이 2000만~5000만 원에 달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아예 놀이터를 없애고 어른들을 위한 건강기구를 설치하거나 주차장으로 만드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어린이들이 흙 만지며 땅 째며 뛰어놀 공간을 어른들이 보호하기는커녕 잠식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부유층 아이들은 놀이터가 아니라도 돈 들여 놀 곳이 많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집앞 놀이터가 유일한 놀이공간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놀이터는 어린이의 인성을 키우고 사회성을 함양하는 기본적인 야외공간이다. 따라서 놀이터 정비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놀이터를 새로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노후아파트 시설 보수예산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준이나 조건을 마련해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굳이 부족한 예산에만 매달릴 일도 아니다. 사회적 기여라는 명분을 들어 지자체가 지역 기업들의 놀이터 개보수 참여를 유도해 볼지도 하다. 차별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를 전가하라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다.

無等鼓

사진 작가 유섭 카쉬(1908~2002)는 인물 사진 전문가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해명웨이와 테레사 수녀의 사진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언젠가 구스타프 클리프트 앞에서 소외되어 묻혀있으며, 망자의 역사로 관리되고 있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카쉬가 찍은 오드리 헵번 사진은 많은 이들이 한눈썹 봤을 듯하다. 머리칼을 단정하게 묶은 옆 모습이 짙힌 흑백 사진이다. 뚝뚝 울러오는 터틀네를 입고 눈을 지긋이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1956년 카쉬가 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신에게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그는 감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듯하다. 할스만이 찍은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점찍하고 있다. 지마 차림에 샌들을 벗어 던진 채 웃음을 터트리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인다. 벨기에 출신으로 영국에서 단역배우에 불과했던 그녀는 영화 '로마의 휴일'을 통해 '세기의 신데렐라'로 등극했다. 198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된 후 그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상징이 됐다. 주름진 얼굴의 아원 그녀가 아이들을 안는 채, 눈물 흘리고 함께 웃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며 좋아하는 시를 읊조렸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손은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한 것이다.'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운 선이 평생 구조활동에 헌신했던 어머니의 뜻을 이어 진도에 조성되는 '세월호 기억의 숲'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추모의 의미로 노란 배타이를 매고 기자회견을 한 그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기업의 탐욕이 없어지고 교육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두 장의 사진은 오래 전부터 내 책상 벽에 붙어 있다. 매일 수차례 쳐다보는 오드리 헵번의 얼굴이 오늘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newspaper informat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ddress, phone numbers, subscription rates.